

##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천 종 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A Study on the Clothing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olk Jogori Design

Jongsuk Chu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1998. 3. 11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lothing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olk Jogori design retailed at the market. This study focussed on comparison of style variation between contemporary Jogori and traditional Jogori.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ive top contemporary folk dress makers' 1997-1998 fall-winter col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 1) The traditional folk clothing constructional elements remained most among the contemporary Jogori design were center back seam(Deung-Sol) and attached front bodice extension(Sup). Neckline shaping(Geet) and neckline binding(Dong-Jeong) were also observed frequently.
- 2) The most obvious changes from the traditional Jogori design were elimination of the ribbon fastener in front, adaptation of various neckline shaping used in the Yi dynasty, and lengthened garment length.
- 3) The western garment construc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contemporary Jogori design were use of pocket and button closure. The center front extension was replaced with attached front bodice extension(Sup) for a few Jogori design.

**Key words:** Contemporary Jogori, Style Variation, Clothing Construction; 생활한복 저고리, 스타일 다양성, 의복구성

#### I.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양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

화하고 있으며<sup>1)</sup>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생활용품 디자인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였고<sup>2)</sup> 일부 기업체와 학교에서는 유니폼으로 한복을 지정하기도 하였다<sup>3)</sup>. 정부와 사회의 이러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한복의 생활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최근 활발히 일고 있는 생활한복의 활성화는 우리 의 생활 문화의 독창성 인식이 민중들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생활한복의 디자인 개발 경향이 한복 디자인의 전통성 보존과 상반되는 측면 및 유지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화기 이후 한복 형태의 현대화는 크게 전통적인 한복 구성 요소를 생략하여 착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향과 한복 구성 요소를 가감(加減) 할 없이 프로포션과 실루엣의 변화를 추구하는 양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생활한복의 정의는 전통 한복의 차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용시의 답답함, 작업시의 거추장스러움 등 전통 한복의 단점을 보완한 한복이라는 견해<sup>4)</sup>와 이전까지의 개량 한복의 사용자가 일부 계층에 제한되고 일상복으로 착용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옷으로 한복으로 보기보다는 양복에 한국적인 복식 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이라는 견해<sup>5)</sup>가 양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량 한복', '생활한복', '우리옷', '현대 한복'의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로 혼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량 한복의 '개량'이라는 단어가 미개하고 좋지 못한 것을 바로 고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개량 한복보다는 '생활옷' 또는 '우리옷'이 더 적합한 용어이며, 전통 의상으로서의 한복은 예복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통 예복'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또한 현대 한복은 해방 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된 한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을 개화기 이후의 개량 한복이나 전통 한복과 차별하여 1990년대 후반에 '우리옷' 또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되는 옷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생활한복 저고리는 생활한복 바지나 치마와 함께 착용하는 옷(upper-body wear)이며 진소매 걸옷(outer-wear)으로 목부터 옷단 끝까지 전면의 전체가 열리어 여며 입는 옷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한복 저고리는 개화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길, 깃, 셀, 뒤중심선, 직선 진동, 등근 배래선, 동정, 옷(겉)고름의 구성 요소를 유지하면서 제작되는 저고리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개량 한복은 해방 이후 생활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제안된 한복의 형태로 단추나 브로치로 걸고름을 대신하고 치마가 무릎 길이로 짧은 모양의 한복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한복' 또는 '우리옷'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의류 제품 중 남·녀 저고리의 디자인을 사례 중심으로 비교하여 전통적인 한복과 생활한복의 디자인 구성 요소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생활한복 디자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통 한복 상의의 구성 요소

우리 민족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형태 및 착용 방법은 시대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sup>8)</sup>. 남·녀의 옷으로 입혀진 저고리는 치마나 바지에 비하여 시대에 따라 디자인의 변화가 많았던 의복이었다. 전통적으로 한복 저고리는 앞길과 뒷길, 등솔, 소매, 셀, 깃, 동정, 옷고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뒷길 중앙의 등솔은 애초에는 직물의 폭이 좁아서 뒤중심에 이음선이 필요하여 시작되었으나,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넓은 폭의 직물이 사용되어도 변하지 않는 한복 저고리의 독특한 요소로 남아 있다<sup>9)</sup>. 양복과 달리 한복의 소매는 진동선과 소매달림선을 직선으로 재단하며 소매의 배래선은 등근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셀은 저고리를 입었을 때 앞중심이 벌어지지 않고 잘 여미지도록 정리하는 기능이 있으며 셀의 너비와 길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걸고름이 너비도 좁고 짧은 끈으로 옷을 여미는 기능성이 강한 요소로 사용되었으나 점차로 넓고 길어져 장식적인 기능을 더하였다<sup>10)</sup>.

여자 저고리는 조선시대 중기를 기점으로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는 길이에서 가슴선의 높이까지 짧아지고 소매 폭도 좁아짐을 보이며, 조선 말엽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깃 너비, 셀, 끝동, 동정도 좁아져 저고리 전체가 작아짐을 보인다<sup>11)</sup>. 깃 모양의 변화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목판깃과 반목판깃이 공존하였으며 중, 후기에는 당코깃과 등근깃이 사용되었다<sup>12)</sup>. 남자 저고리는 조선말의 저고리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sup>13)</sup>, 조끼와 마고자가 남자 상의의 기본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중 조끼는 개화기 이후 남성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은 옷으로 서양 의복의 일부가 개화기 이후 한복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14)</sup>. 조끼의 디자인은 대부분 진동 부분을 죽선으로 파임을 주고 저고리 깃의 일부와 동정이 보일 정도의

목 파임을 주며 5개의 단추로 여민다. 원편 가슴에 작은 주머니 1개, 양 허리 부위에 큰 주머니 2개가 있으며 겨울용 조끼는 대부분 웰트 포켓(welt pocket)을, 여름용(모시) 조끼의 주머니는 패치 포켓(patch pocket)의 형식으로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5)</sup>. 마고자는 저고리와 조끼 위에 덧입는 옷으로 원래는 만주인의 옷이었으나 대원군이 만주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 유입되었다고 전해진다<sup>16)</sup>. 남자용 마고자는 저고리와는 달리 깃과 동정이 없으며 앞여밈은 2개의 단추를 고리로 여민다. 또한 양옆에 트임을 주는 것도 저고리와의 차이점이다<sup>17)</sup>. 여자용 마고자는 남자용 마고자와 비슷한 형태이나<sup>17)</sup>, 길이가 짧고 양 옆트임이 없으며 셀도 달리지 않는다<sup>18)</sup>.

## 2. 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상의 변화

생활양식이나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식 문화의 특성상 한복 형태의 변화는 조선시대에는 계급과 성별 차이를 두기 위해 이루어졌으나<sup>19)</sup>. 구한말 개화기에는 서구 문물과의 접촉으로 착용 방식의 간소화의 방향에서 이루어졌다<sup>20)</sup>. 광복 이후 여성의 복식은 양복과 전통적인 한복, 개량 한복이 공존하였으며, 개량 한복은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것, 기본형 자체를 변형하여 양복화시킨 것, 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도입시킨 것 등 한복 구성 요소의 출현 비율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sup>19)</sup>.

해방 이후 한복 형태 변화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말경부터 1960년대에는 한복의 디자인 변화의 시도가 활발하였던 시기로 한복을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단추나 브로치로 걸고름을 대신하는 걸고름의 개량은 큰 무리가 없이 받아들여졌다<sup>20)</sup>. 저고리의 크기는 1950년대 여자 저고리는 이후의 저고리에 비하여 대체로 품이 넉넉하고 깃, 셀, 옆선의 길이가 비교적 길며 앞처짐 분이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의 저고리는 저고리 길이가 점차 짧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한복의 옷감은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sup>21)</sup>. 즉 1950년대의 한복은 착용과 관리가 간편한 일상복으로서 사용이 높았음을 시사하며 1960년대 이후 저고리의 짧아짐, 치마 길이의 길어짐, 장식의 증가 등은 한복이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1970년대에는 직물 산업과 패션 산업의 발달에 따라

대량생산된 기성복(양복)이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예복으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간편성을 추구하는 한복의 개량화 경향이 미약하였다. 1980년대의 한복은 저고리는 짧아지는 반면 치마는 긴 A-line 실루엣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sup>22)</sup>. 또한 한복 소재로 관리가 간편한 합성섬유 대신 실크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었음<sup>23)</sup> 한복 디자인의 고급화, 예복 성격의 강화와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적인 스타일과 화려함을 추구하였던 1980년대의 한복 디자인 개발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의 한복은 예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생활한복은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개선된 옷으로서 양 옷이 아닌 우리 옷이라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 III. 연구 방법

생활한복의 디자인에 대한 기초 조사는 199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생활한복을 전시 판매하는 매장 10곳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기초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전통 한복과 차별화되는 생활한복 저고리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요소에 대하여 1998년 1월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시킨 업체는 서울 시내에 3군데 이상의 매장을 지니고 있는 5개의 대표적인 생활한복 생산·판매업체이며 1997~1998 겨울용 남자 저고리 30점과 여자 저고리 28점의 구성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에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다른 구성적 특징을 가진 제품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직선 진동, 깃, 셀, 옷고름, 동정, 등술 등 전통적인 한복 저고리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생활한복 저고리의 디자인에 포함된 서양 의복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반영 정도는 어떠한가? 3) 생활한복의 치수의 특징은 어떠한가?

## IV. 결과 및 고찰

### 1.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징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자용 저고리 30벌과 여자용 저고리 28벌에 대

한 디자인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표 1). 전통 한복 저고리의 디자인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변화는 겉고름의 생략, 단추와 포켓의 사용, 소재를 순면으로 사용하는 점들이다. 또한 동정은 본 깁과 색상은 다르나 섬유 조성은 같은 소재로 봉제하여 배색의 효과와 관리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표 1> 생활한복 저고리의 디자인 특성 (%)

디자인 요소	남자저고리 (n=30)	여자저고리 (n=28)
등솔	90	71
섶	67	57
직선 진동선	70	64
동정	73	46
끌동	20	18
(앞단)	27	29
(프린세스라인)	3	4
깃 모양		
등근깃	63	46
당코깃	17	14
목판깃	7	7
맞깃	4	14
기타(변형형)	10	18
옷 고름		
겉고름	0	0
안고름 (단추)	10	4
	100	100
포켓		
웰트 포켓(welt p.)	53	21
패치 포켓(patch p.)	23	7
인셈 포켓(inseam p.)	10	7

\* ( )는 한복의 전통 제작법이 아닌 서양 의복 구성의 형식이다.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서의 변화는 여자 저고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즉 남성 저고리는 등솔이 90%, 절이 67%, 동정이 73% 사용되었으나, 여성용 저고리는 등솔은 71%, 절은 57%, 동정은 46%로 낮은 출현 비율을 보인다. 직선 진동선은 남자와 여자 저고리에 각각 70%와 64%가 남아 있었다. 여성용 저고리에 사용되던 끌동은 남녀 저고리 모두 20% 정도씩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깃 형태는 개화기 이후 전통 한복의 깃 모양으로 정착된 등근깃이 남녀 저고리에서 각각 63%와 46%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 초기와 중기 저고리에 사용되던 깃의 형태인 목판깃이나 당코깃이 그다

음으로 많이 사용됨을 보인다. 이외에도 여성용 배자에서 사용되던 맞깃도 여성 저고리의 깃 형태 중 14%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통 한복의 깃으로 분류할 수 없는 형태도 나타나 생활한복 디자인의 변형이 깃 모양에서 크게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전통적인 저고리에서는 없던 요소가 생활한복 남성 저고리 디자인에 나타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머니(포켓)로 웰트 포켓(welt pocket)이 53%, 패치 포켓(patch pocket)이 23%, 인셈 포켓(inseam pocket)이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용 저고리에는 주머니의 사용이 35%에 그치고 있다. 즉 남자 저고리는 조끼에서 사용하는 수평의 웰트 포켓(welt pocket) 사용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성용 자켓이나 코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머니가 사용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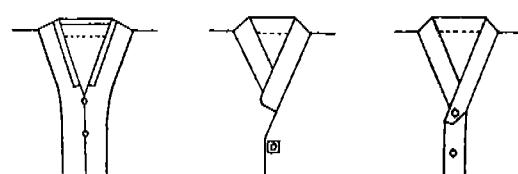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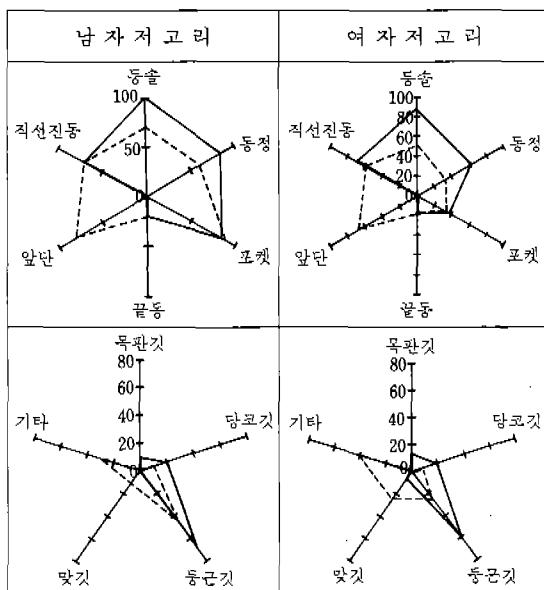
그림 1] 깃 모양 변형의 예

## 2. 생활한복 남·녀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따른 상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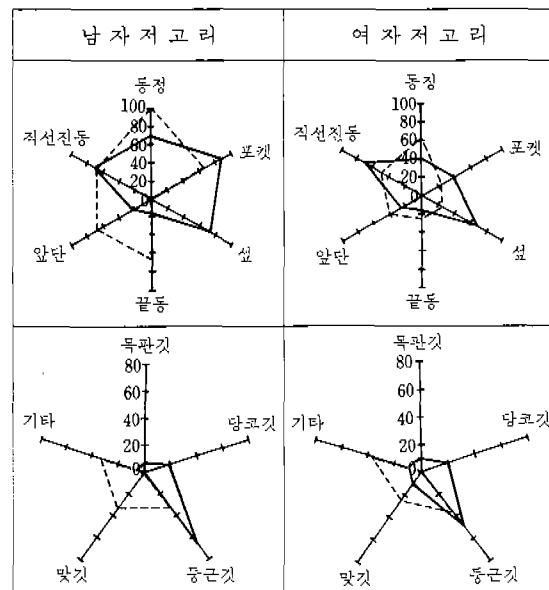
한복의 구성 요소인 절, 등솔, 직선 진동선, 동정, 끌동과 서양 의복의 구성 요소인 포켓과 앞단에 대하여 각각의 구성 요소가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에 이용됨/이용되지 않음이 다른 구성 요소의 사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복 디자인 구성 요소의 존재여부에 따라 깃 모양의 출현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 1) 절

절이 있는 저고리는 등솔과 동정의 출현 빈도가 높고 절이 없는 저고리는 앞단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절이 있는 모든 남자 저고리는 등솔이 있었으며 동정은 85%로 출현 빈도가 높다. 그러나 절이 없는 남자 저고리는 등솔이나 동정의 출현률이 절이 있는 저고리보다 낮았으며, 절 대신 앞단의 형태가 80%나



[그림 2] 설이 저고리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요소 출현비율(— 유 -- 무)



[그림 3] 등솔이 저고리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요소 출현비율(— 유 -- 무)

타났다. 여자 저고리도 설이 있는 디자인에 비하여 설이 없는 디자인의 등솔은 88%에서 50%로, 동정은 63%에서 33%로 사용율이 낮아짐을 보인다. 여자 저고리도 남자 저고리처럼 설이 없는 디자인은 앞단의 출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저고리는 설이 없는 경우 소매달림선이 서양 의복처럼 곡선 처리되는 경우가 31%에서 42%로 더 늘어남을 보인다. 즉 설이 있는 디자인에서 직선 소매달림선(진동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이 있는 남·녀 저고리는 목판깃, 당코깃, 둥근깃의 출현 비율이 각각 10% 내외, 20% 내외, 70% 내외로 서로 비슷하며 변형된 깃 모양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설이 없는 저고리에는 목판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설이 없는 여자 저고리는 둥근깃의 출현비율이 25%로 설이 있는 저고리보다 매우 더 낮다. 맞깃과 변형된 깃 모양은 설이 없는 저고리에서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나, 설이 있는 저고리는 전통 한복의 깃 모양으로 인식되는 둥근깃의 출현 비율이 높으므로 설은 저고리의 구성요소 중 전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을 시사한다.

## 2) 등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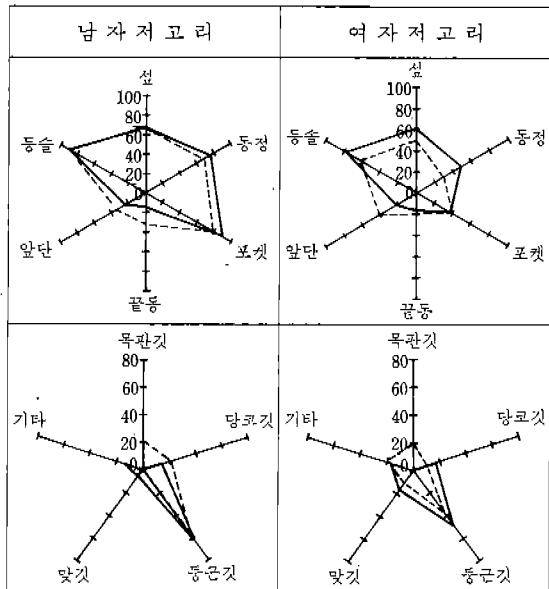
남자 저고리에서 등솔의 유·무는 설, 끌동, 앞단에

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그림 3). 즉 등솔이 있는 남자 저고리는 설이 있는 경우가 74%이었으나 등솔이 없는 저고리는 설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여자 저고리도 등솔이 있는 디자인에서 설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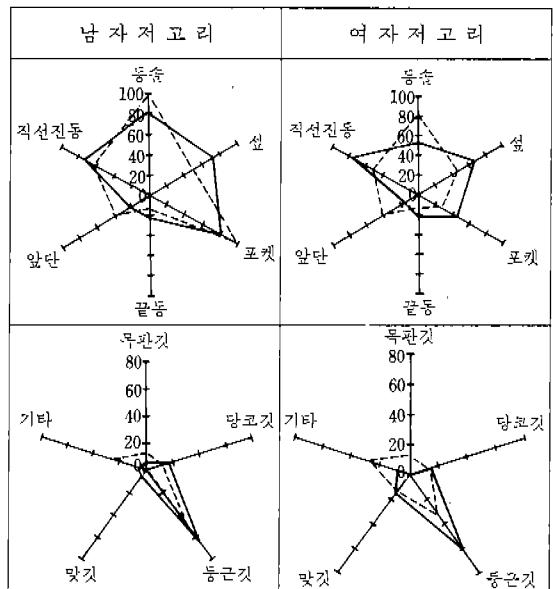
등솔과 앞단 또는 끌동의 관계는 등솔이 없는 남·녀 저고리에서 끌동과 앞단의 출현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 저고리에서 더 뚜렷하였다. 끌동이 전통적인 남자 저고리 디자인에 응용되지 않는 구성 요소이며, 앞단은 서양 의복의 구성 요소라는 점을 고찰하면 등솔이 저고리 디자인의 전통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등솔과 직선 진동의 관계는 남자 저고리보다 여자 저고리의 디자인에서 뚜렷하였다. 남자 저고리는 등솔의 존재가 직선 진동의 출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나, 여자 저고리 디자인은 등솔이 있는 저고리는 직선 진동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등솔이 없는 저고리에서 변형된 깃 모양과 맞깃의 출현 빈도는 높아지나 목판깃과 당코깃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등솔이 저고리 디자인의 예스러움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직선 진동선이 저고리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요소 출현비율(— 유 -- 무)



[그림 5] 동정이 저고리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요소 출현비율(— 유 --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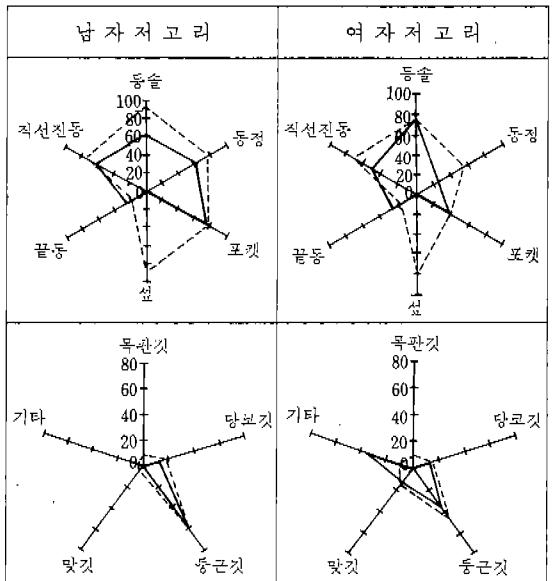
### 3) 직선 진동선

여자 저고리는 남자 저고리보다 소매 진동선이 직선을 유지하는지 꼭선으로 변형되었는지가 다른 저고리 구성 요소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그림 4). 진동선이 직선을 유지한 여자 저고리는 등술, 셀, 동정의 출현 비율이 10~20% 정도 더 높게 나타남을 보인다.

그러나 서양 의복 구성 요소인 앞단의 출현율은 낮게 나타나 소매 진동선이 직선을 이룬다는 것이 여자 저고리 디자인의 전통성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 4) 동정

동정이 있는 저고리는 셀의 출현 빈도가 높고 앞단과 등술의 출현 빈도가 낮음을 보인다(그림 5). 여자 저고리는 동정이 있는 디자인이 직선 진동선의 출현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동정이 있는 디자인은 목판깃과 면형깃 형태의 사용이 낮았다. 목판깃은 동정이 없는 남·녀 저고리에서 13%의 출현 비율을 보이며 남자 저고리에서는 동정이 있는 저고리에서도 5%의 출현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동정이 있는 여자 저고리는 목판깃 디자인은 전혀 시도되지 않음을 보인다. 즉 목판깃의 여자 저고리는 동정을 달지 않으나 남자 저고리에서는 목판깃에도 동정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인다. 맞깃은



[그림 6] 앞단이 저고리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요소 출현비율(— 유 -- 무)

동정이 있는 여자 저고리에서 출현빈도가 높다.

### 5) 앞단

남·녀 저고리 모두 앞단이 있으면 셀이 없음을 보인다(그림 6). 즉 생활한복 저고리에서는 셀이 없는 경우

서양 의복 구성 요소인 앞단이 셋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또한 앞단이 있으면 동정, 직선 전동선의 출현율도 낮아짐을 보인다. 남자 저고리는 앞단이 있는 디자인에서 등술의 출현율도 낮아짐을 보인다. 앞단이 있는 저고리는 목판깃이 없으며 변형된 깃 모양의 출현이 높게 나타난다.

### 3. 생활한복 남·녀 저고리의 생산 치수

생활한복은 남·녀 저고리 모두 3~4가지의 치수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남자 저고리는 95, 100, 105 치수가 모든 디자인의 저고리에서 생산되었으며, 여자 저고리는 90, 95에 해당하는 치수가 모든 디자인에서 생산되었다. 3가지 치수가 생산되는 경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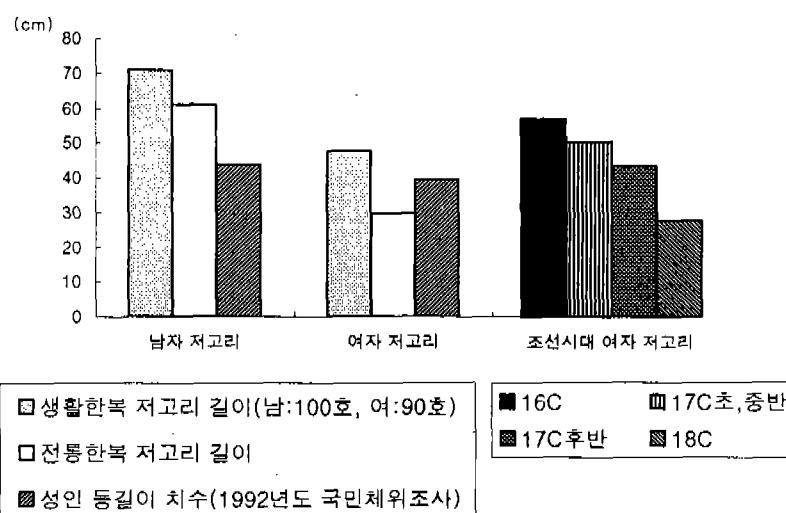
자 저고리는 85 또는 100 치수를 추가적으로 생산되었다. 약 40%의 저고리는 4가지 치수로 생산 판매되었으며 남자 저고리의 경우 추가되는 치수는 90호에 해당하는 작은 치수였으나 여자 저고리는 브랜드나 디자인에 따라 105호에 해당하는 큰 치수를 제공하였다.

생활한복과 전통 한복이 추구하는 저고리 길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간 치수에 해당하는 여성용 90호와 남성용 100호의 저고리 뒷길이를 측정하여 전통 한복 제작법에서 제시하는 전통 한복 저고리의 길이를 비교하였다<sup>9)</sup>. 또한 1992년도 국민체위 조사에서 보고된 성인 남녀(18세~50세)의 평균 등길이와 비교하였다(그림 7). 비교 결과 생활한복 남자 저고리는 전통 한복 저고리보다 평균 9.6 cm 더 길고 성인 남성의 등길이보다 27.1 cm 더 길어 엉덩이를 덮는 길이임을 알 수 있다. 여자 저고리는 전통 한복 저고리보다 평균 17.9 cm 더 길고 성인 여성의 등길이보다는 8.0 cm 더 길어 허리를 덮는 정도의 길이임을 알 수 있다.

즉 생활한복 저고리는 남·녀 모두 전통 한복보다 길고 특히 남자 저고리는 엉덩이까지 덮는 자켓의 길이 정도이나 여성 저고리는 허리선을 덮는 정도 길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한복 여자 저고리의 길이는 조선시대 저고리 길이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면 17세기 경의 저고리 길이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이 조선 초기와 중기의 것 모양

<표 2> 생활한복 저고리 치수의 다양성 (%)

	남(N=30)	여(N=28)
치수의 가짓수	3	60
	4	40
	85	0
	90	37
	95	100
	100	100
	105	39
	100	79



[그림 7] 저고리 뒷길이의 변화와 인체 치수와 비교

을 복원하려는 경향과 함께 여성용 생활한복 저고리 길이에서도 조선시대 저고리 형태로의 귀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결 론

1997~1998 겨울용 생활한복 남·녀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 전통 한복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요소는 등술, 직선 진동선, 셋, 동정이었으며 특히 남자 저고리에 전통적인 한복 구성 요소가 더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강조점으로 인식되는 겉고름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1~5개의 단추 여밈으로 대신하였다.

2. 한복의 구성 요소 중 셋, 등술은 한복의 고유한 구성 요소의 유지와 관계가 있었다.

3. 깃 모양은 조선말 이후 한복 저고리의 깃 모양으로 정착된 둥근깃 외에도 조선초 이후의 깃 모양이 재현되거나 변형된 깃 모양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서양 의복 구성 요소 중 단추의 사용은 남녀 저고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포켓의 활용은 남자 저고리에서 뚜렷하였다.

5. 일회용 등정이 아닌 다른 색상의 직물 등정의 봉제는 색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적합하도록 관리의 편리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6. 남녀 저고리의 생산 치수는 3가지가 일반적이었다. 생활한복 저고리 길이는 전통 한복보다 더 길고 특히 남자 저고리는 자켓처럼 엉덩이를 덮는 길이임을 보인다. 생활한복 여자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는 정도의 길이이며 17세기의 저고리 길이와 비슷함을 보인다.

저고리 길이, 깃 모양 등에서 생활한복 저고리의 디자인이 조선시대의 저고리 디자인을 복원하려고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 한복의 기본 요소로 인정되는 다른 요소가 생략되거나 서양 의복 구성 요소인 단추와 포켓의 사용은 생활한복의 파급이 우리의 민속 복인 한복의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겨울 저고리 디자인에 대하여 실시되어 생활한복 저고리 전반에 대한 구성적 특징의 변화로 해석

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봄·여름용 저고리 디자인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생활한복 저고리의 구성적 특징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송현순, 신세대여 우리 옷을 입어라, 한겨레 21, 7월 27일, 1995.
- 2) 김범수, 소비자 광장, 한국일보, 12월 12일, 1996.
- 3) 이득수, 생활 속에 옛 멋을 살리자, 일간스포츠, 1월 3일, 1997.
- 4) 이인자, 이태옥, 한복 생활화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p. 177, 1993.
- 5) 황의숙, 한국 여성 전통 복식의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pp. 289-306, 1995.
- 6) 한국의 미, 한복의四季, pp. 154-156, 1996.
- 7)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p. 330-346, 1983.
- 8) 박찬부, 강혜원, 한국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호, p. 37, 1995.
- 9) 고복남,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집문당, pp. 30-31, 1987.
- 10)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pp. 18-20, 1986.
- 11)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p. 127, 1995.
- 12)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628, 1980.
- 13) Sunny Yang, HANBOK-The Art of Korean Clothing, Hallym, p. 172, 1997.
- 14)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p. 69, 1995.
- 15) 뿌리깊은 나무, 여름 한복, 대원사, 1992.
- 16) 안명숙, 김용서, 한국복식사, 교문사, p. 206, 1996.
- 17)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p. 245, p. 438, 1993.
- 18) 조효순, 조선조 후기 여성 복식과 개량 논의 -박규수의 내복편을 중심으로-, 복식, 4호, pp. 1-12, 1981.
- 19) 남윤숙, 한국 현대 여성 복식 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5, 1989.
- 20) 홍나영, 한복 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복식, 15호, p. 141, 1990.
- 21) 전미희,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 중심으로-, 복식, 15호, pp. 149-165, 1990